논어 15편 위령공 25장 · 원문·풀이

子曰：「吾猶及史之闕文也，有馬者，借人乘之。今亡矣夫！」

독음 · 자왈 오유급사지궐문야 유마자 차인승지 금무의부

쉬운 풀이(요약) · 옛 기록자는 모르는 부분을 빈칸으로 남겼고, 말을 가진 이는 남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. 모름을 인정하던 풍속이 사라짐을 아쉬워했다. 이 장에는 다른 해석도 있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曰 가로 왈 / 吾 자기 오 오 / 猶 어미 원숭이 유 유

及 미칠 급 급 / 史 역사 사 사 / 之 갈 지 / 闕 대궐 궐 궐

文 무늬 문 문 / 也 어조사 야 / 有 있을 유 / 馬 말 마 마

者 놈 자 / 借 빌 차 차 / 人 사람 인 / 乘 오를 승 승

今 이제 금 금 / 亡 망할 망 망 / 矣 어조사 의 / 夫 지아비 부 부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